

# 문자로 취업 사기, 3배까지 급증

## 젊은층 피해도 많아...문자면접·입금도 요구

'취하를 위한 고소득 재택근무 기회'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면 "누가 이런 것에 속아 넘어가겠어" 라고 생각하기 쉽다. 테무나 타깃 같은 대형 기업이 근거 없이 나에게 꿈같은 일자리를 제안하는 일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실제로는 이 같은 사기에 당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최근 몇 년 사이 '스캠 문자' 는 폭발적으로 늘었다. 연방거래위원회(FTC)에 따르면 2024년 소비자들이 문자 메시지 사기 피해로 신고한 금액은 4억 7,000만 달러로, 2020년의 다섯 배다. 가장 흔한 유형은 '가짜 택배배송' 이었지만, 2위는 바로 '일자리 제안' 사기였다. 유명 기업에서 보낸 것처럼 꾸민 채용 문자, 혹은 평범한 온라인 업무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약속이 대표적이다.

FTC 소비자보호국 변호사 케이티 대프윈은 "문자 사기 피해 신고와 구직 사기 피해 신고가 모두 증가세" 라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구직 사기 피해 신고 금액이 세 배 넘게 늘었다" 고 밝혔다.

사기 문자 급증에는 몇 가지 배경이 있다. 노동시장이 흔들리고 가계 불안이 커진 가운데, 원격근무를 원하는 사

람도 많아졌다. 동시에 인공지능(AI)은 사기 문자를 더욱 그럴듯하게 만들며 범죄를 손쉽게 대량 생산한다. 사이버 보안 기업 프루프포인트의 셀레나 라슨 연구원은 "실업이 늘고 경제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사기가 증가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속을 가능성은 높아진다" 고 지적한다.

### ■ 문자 면접부터 선입금 요구까지

사기 문자 수법은 단순하다. 출처를 알 수 없는 번호나 그럴듯한 이메일 주소에서 매력적인 일자리 제안을 보낸다. 고작 몇 시간 온라인 작업으로 고연봉을 보장한다는 식이다. 면접을 전부 문자로 진행하거나, 급여를 암호화폐로 지급하겠다고 하거나, 심지어 입사전 비용을 내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비영리 단체 '신분 도용 자원센터(ITRC)' 의 에바 벨라스케스 대표는 "2023년 구직 사기 신고가 급증해 우리도 놀랐다" 며 "이 사기는 매우 수익성이 높아 개인 정보뿐 아니라 돈까지 빼앗는다" 고 말한다. 사기꾼은 합법적 채용 과정에서 요구될 법한 소셜번호, 운전면허증·여권 사진, 은행 계좌 정보 등을 수집해 신분 도용 등 범죄에 악용한다. 합법적 절차와 유사해 피해자들이 경계심을 풀기 쉽다.

더 나쁜 경우 '장비 구입' 명목으로 피해자 돈을 빼낸다. 채용이 확정됐으며 수표를 보내 프린터 같은 사무용품을 사라고 지시한 뒤, 실제 물건 가격보다 많은 금액을 보내고 차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한다. 나중에 수표가 부도 처리되면 피해자는 물품 비용과 차액 모두를 잃게 된다. 선불카드나 가짜업체 결제 등을 요구하는 방식도 있다.

FTC는 특히 '작업(task) 사기' 가 급증했다고 경고한다. '제품 부스팅' 이



나 '앱 최적화' 같은 명목으로 동영상에 '좋아요' 를 누르거나 상품 평점을 매기는 일을 시키며 수수료를 준다고 속인다. 하지만 앱 내에서 오히려 돈을 결제하도록 유도해 결국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손해만 보게 만든다.

### ■ Z세대·밀레니엄 세대도 피해

사기 피해자는 노년층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으나, 문자 구직 사기에서는 젊은층도 만만찮다. Z세대와 밀레니엄 세대는 온라인으로 거의 모든 일을 처리하는 데 익숙하다. 벨라스케스는 "진지한 비즈니스를 문자로 한다는 게 X세대인 내겐 낯설지만, 젊은층에겐 일상" 이라고 설명한다. 부업 문화에 익숙한 데다 클릭 몇 번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에 매력을 느끼기 쉽다. 게다가 IT·공공부문 구조조정 등으로 구직 시장이 한층 냉각돼 젊은층은 일자리 사기에 더 취약하다.

스캠 차단 서비스 유메일(YouMail)의 알렉스 켈리치는 "Z세대와 밀레니엄 세대는 무심코 클릭을 하다 다투어 걸리곤 한다" 고 평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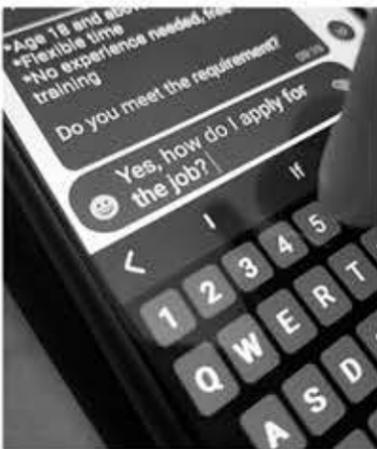
### ■ 사기 피하는 최소한의 방법

FTC는 "예고 없이 온 문자·왓츠앱·SNS구직 제안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응답하지 말라" 고 조언한다. 의심스러운 제안을 받았다면 ▶발신 주소·번호 확인 ▶맞춤법·문맥 오류 체크 ▶급여·근로조건이 '너무 좋다' 면 의심 ▶암호화폐 지급·문자 면접·선불비용 요구는 즉시 거절해야 한다. 합법적 제안인지 확인하려면 해당 기업 공식 구인공고를 찾아 세부 사항을 대조하거나, 직접 회사에 연락해 진위를 확인하면 된다.

무엇보다 '속도를 늦추는 것' 이 핵심이다. 라슨은 "채용을 재촉하며 비용을 요구하면 모두 의심해야 한다" 고 강조한다. 경제 상황이 어렵고 구직이 길어질수록 사기에 노출될 가능성은 커진다. 대프윈은 "추가 수입을 원한다는 점을 사기꾼이 노린다" 며 경계를 당부했다.

문자 한 통에 인생이 흔들릴 수 있는 시대다. 구직자라면 두 번 생각하고 클릭하는 것이 좋다.

사진=shutterstock





# EXPO LENDING

Gale Financial DBA Expo Lending  
Equal Housing Lender DRE: #02064448 NMLS: #1721928






**이자율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채용자 준비하세요.**

신속한 융자 필요하신 분! 융자 상담 도와드립니다. 타주 융자 가능

- Reverse Mortgage • Line of Credit – Low Cost
- Conventional Loan • VA/FHA Loan • 채용자
- 투자용 주택 스페셜 프로그램

**Sean Kim**  
Senior Loan Agent

NMLS #343413 **213.591.2535**  
seanhansu@gmail.com  
18725 E. Gale Ave. Ste. 100, City of Industry, CA 91748